

레슬리 폭스크로프트 Lesley Foxcroft

Interview with Gallery Shilla

“Q1. # 00:16:23 - 00:17:37 어떤 재료를 쓰셨습니까?”

Well, in this show, there is two kinds of material, there is MDF and there is rubber. But usually i use MDF more than rubber.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 used the rubber ,totally, in the show. So it is a new material for me. But i can talk more about MDF. Because I have used that for a long while and this show is, the brown species are MDF pieces and chose MDF,

I have been working with it for 15 years at least, because it was simple material and everyday material that workman use rather than artistic Material.

And i like the clean edge it make when you cut it a very, really straight edge rather than a lot of other materials and I like that because of the , Hard to vary,, , It work very well with the architecture and I like to use that when i am making an exhibition. I like to use space to help me decide what work to use in the space.

음 이번 전시에는 두가지 소재들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MDF이고, 다른 하나는 고무 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무보다는 주로 MDF 를 사용 합니다. 사실, 전시에서 고무를 사용한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고무는 저에게 아직 생소한 소재 입니다. 하지만 MDF에 대해 좀더 설명 드리자면, 저는 이 소재를 꽤 오래 동안 사용 해 왔습니다. 갈색 작품들은 모두 MDF 소재 작품들입니다.

저는 MDF소재로 최소한 15년동안 작업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MDF는 단순한 소재 이고, 일상적인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술적인 소재이기 보다는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소재에 더 가깝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MDF를 잘랐을때 나타나는 깨끗한 못서리, 다른 많으 소재들 보다 더 직선적인 모서리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음 설명하기 어렵지만,,, , 그것이 구조(전시장 - 공간)과 잘 상호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시를 할때마다 이러한 MDF 소재의 장점을 사용합니다. 저는 공간을 이용해 그공간에 설치한 작품을 선택 합니다.

Q2. # 00:19:47 - 00:20:30 재료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 혹은 의미

Well it was more than just hand by chance. I was just start to work with this rubber material.(I would, If ,,,,) If i would have thought 6 months ago, no a year ago what would i make for Korea, I would, probably made all MDF Pieces.

But, because i was out to buy MDF one day, I came across this material that i thought, I could, had intuitions that i would be available to use it within the work. So i bought myself a raw and then got the feeling of it and really like it. So that's why i incorporated it within the Show

음 (이 재료를 선택한게 된 이유는) 우연한 변화 그이상 이였습니다. 최근에 고무를 소재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음, 만약 제가 6개월, 아니, 1년 전에 한국을 위해 작업 할거라고 생각 했다면, 아마 모든 작품들을 MDF로 만들 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날 MDF를 사러 밖으러 나갔을때, 저는 고무소재를 보게 되었고, 그것을 보면서 이 소재를 제 작업에 사용할수 있을 것 같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단을 사게 되었고, 고무만의 느낌을 느꼈으며, 정말 좋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무를 이번전시에 함께 사용 하게 되었습니다.

Q3. # 00:21:24 - 00:22:08 작품해설

This one behind? well, this work(Behind side) originated from making This piece(Right side) of the rubber. Because when i was cutting it, it created almost sculptural field. And so then i was working with strips of MDF like this. Then i put the two together and i felt, i can, Trying to make the same feeling with the MDF as looking at this piece of rubber. And tried to make, Straightly, sort of impression. I am getting this idea(Right side), This idea (Behind side) from this idea(Right side)

여기 뒤편에 있는거 말씀 하시는 건가요 ? 음 이작품은 고무로된 (오른편) 작품을 만들다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제가 고무작품을 잘랐을때, 그것은 뭔가 조각적인 면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느낌을 이렇게 두개의 MDF 조각으로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조합 시켜놓은뒤, 저는 제가 고무 작품과 같은 느낌을 만들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더, 직선적인 인상에 가까웠죠. 저는 이 아이디어(고무 작품)을 얻어, 그아이디어로(고무작품) 제 뒤의 작품의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Q4. # 00:22:47 - 00:22:53 왜 십자가 모양인가 ?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No No religious meaning or anything other than, its the shape that I like

아니요, 종교적이거나 혹은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형상이예요

Q5. # 00:22:53 - 00:24:08 전반적인 전시주제

Well the meaning of it, is really, more or less, in the spectator's view. I really, I'm just presenting something that i hope that somebody else can get some pleasure out of or interest from. I am only here to present the work and I have a feeling for it. but i am hoping to try to pass the feeling on to the viewer and hope that they can gain some interest or pleasure out of it

음, 전시의 의미라,, 정말로 그건, 아마 거의, 관객의 관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단순히 누군가가 즐거움을 찾을수 있거나, 흥미를 느낄수 있는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단순히 제 작업을 설치했을 뿐입니다. 저는 물론 제작품에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그것이 관객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관객들이 그 느낌에서 흥미나

즐거움을 찾기를 바랄 뿐입니다.

Q6. # 00:24:08 - 00:25:50 직선과 대각선 패턴의 차이와 이유

Well I supposed a lot of it, It was the first time i have used it so, I thought the most obvious one to use was a vertical and horizontal. And then from there the others Progressed diagonals and this one, a section of diagonal. But i have others at home but i couldn't bring so many for the show. But it was really, just wanted to take very simples, you know, right angle, generally speaking but i did the diagonal one as a result of doing this piece. so they work together

음, 많은 것을 생각 했었지만, 일단은 (고무)를 처음으로 사용 한때였기에, 저는 가장 먼저 사용해야 할것은 수평과 수직 형상 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모양) 작품들에서 대각선 형상 작품들이 발전해 나왔습니다. 이 작품의 대각선 부분이 나온것입니다. 집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번 전시를 위해 다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는 정말 단순하고 일반적으로 이야기 되는 정각(90도)를 표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작업하던 결과로 대각선 작품을 을 만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함께 표현 되고 있습니다.

Q7. # 00:26:40 - 00:27:28 작품 제작 과정에 관한 질문

Well this, the MDF that has s shape, has a shape to it that bends like this. It is made with the very, very thin MDF, 2mm thick, and it is quite flexible as supposed to MDF which is normally light wood solid. And this , because it so thin, It can bend.

So I started to layer them and the the bend become permanent as supposed to be inflexible. And i just liked the idea of it. and Realised that i could do lots of different shapes with it and It became something that i used with in the work

음, 이 MDF는 ,이렇게 구부러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얇은 , 2mm 두께, 의 MDf 로 만들어 져있고, 기존의 MDF가 가벼운 딱딱한 나무로 이루어 진 것에 비해 상당한 유연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MDF는 매우 얇기에 구부러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저는 이것들을 층층이 쌓아 이러한 구부러짐이 영구적으로 남게 만들었습니다. 그후 저는 이 작업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더 많은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 았습니다. 그후 이러한 기법은 제가 작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